

# 내가 쓰고, AI는 구조를 만든다

의미는 그대로 두고, 구조와 흐름을 정리하는 AI 협업  
글쓰기입니다

박희성

## 1. 의미는 그대로, 흐름은 달라졌다

(글의 일부를 발췌한 예시입니다.)

불쑥 불쑥 올라오는 날 것의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그저 나의 상태를 말씀드린다. 이전과 달라진 점은, 나의 방법을 들이밀며 나의 방법으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



불쑥불쑥 올라오는 날 것의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,  
나는 그저 하나님께 나의 상태를 말씀드린다.

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,  
나의 방법을 들이밀며 그 방법대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


같은 생각도,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.

## 2. 글이 이미지로 이어지다

< 📖 말씀 앞에 앉은 시간 📄 ☰

신약 묵상

### 안전감이 없는 나, 하나님께 말하다 (요한복음 11장 묵상)

 불드는 사람  
5시간 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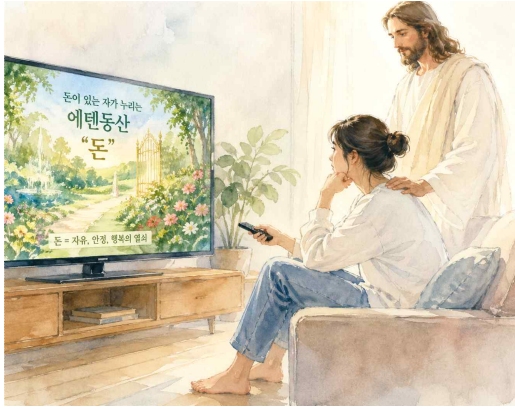
👤 통계 ⋮



불쑥불쑥 올라오는 날것의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,  
나는 그저 하나님께 나의 상태를 말씀드린다.

글의 메시지를 시각 이미지로 확장해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

### 3. 혼자가 아니라, 함께 다듬다

요청1	<p>나사로는 죽은 상태였다. 나도 죽은 상태로 오래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.</p> <p>내용은 그대로 두고, 독자가 읽기 쉽게 다듬어 줘</p>
AI	<p>나사로는 죽어 있었다.</p> <p>그리고 나는,</p> <p>오랫동안 죽은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.</p>
요청2	<p>내 뒤에는 예수님이 계신데, '돈'이 낙원으로 묘사되는 TV방송을 보는 나를 그려줘.</p>
AI	

글은 직접 쓰고, AI는 구조와 흐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협업했습니다.

#### 4. 그래서, 이 이야기가 남는다

나사로는 죽어 있었다.  
그리고 나는,  
오랫동안 죽은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.

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시다.  
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.

돈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메시지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,  
나 역시 그 메시지에 깊이 잠겨 있었고  
그래서 죽어 있었다.

불안을 근거로 행동한 결과는  
결국 또 다른 불안을 낳을 뿐이었다.

정리된 구조는 메시지를 더 또렷하게 전달합니다.

해당 글 전체 보기

<https://blog.naver.com/place-800/224264645945>